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형성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국외 아동 증언 연구를 중심으로

이승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최근 들어 아동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아동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논쟁과 함께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바람직한 라포 형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관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의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국외의 폭넓은 경험적 연구들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을 바탕으로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의 방법과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 특성에 따른 차별적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 라포 형성시 질문 형태 따른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아동 증언 관련 학술자 및 현장 실무자들에게 아동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의 중요성, 아동의 연령과 다양한 수사 사건의 특성들을 심도 있게 고려한 라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어: 라포 형성, 사회적 지지, NICHD 프로토콜, 아동 증언

아동 진술을 요구하는 수사면담의 대부분은 아동 성폭력 및 아동 신체 학대와 관련한 범죄 사건들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학대'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3.5만 가량의 사건이 아동 학대 혐의로 보고되고, 2007년에는 약 총 80만 가량의 아동들이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2009). 아동 학대 혐의의 이와 같은 높은 빈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및 세계 여러 국가들

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Creighton, 2004). 이는 아동 학대가 각 지역 사회나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들은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에 심리학, 아동학, 사회학 관련 연구자들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그 동안 아동의 직접 참여를 어렵게 했던 제도적 장벽들을 철회하는 진보적 노력을 기울여

* 교신저자 : 이승진,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B # 3270, Davie Hall, Chapel Hill, NC, USA, 27599-3270, 070-8227-3919, E-mail: sjmagiclife@gmail.com

아동 진술이 법정에서 사건의 실증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Lamb, 2003). 이에 따른 결과로 매해 전 세계적으로 법조계, 수사계, 사회단체, 아동복지 단체의 전문가들이 수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의 전반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학술적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의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Bruck, Ceci, & Principe, 2006).

아동 범죄 사건의 발생 여부와 피의자의 올바른 식별은 또 다른 피해자의 속출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아동과 가족의 궁극적인 안녕과 복지를 보호 하고, 더불어 피의자의 합법적인 처벌과 정신적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아동 학대는 다른 형사 사건들과 달리 아동의 인지, 사회 및 정서, 신체 발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조기 식별과 사건 해결의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특히 아동 학대 사건은 현실적으로 가시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로 제시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사 사건과 관련한 의미 있는 정보 획득을 위한 아동 수사 면담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수사면담시 획득된 아동 진술이 아동과 아동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행정적 판결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면담자는 사건의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 연루된 아동이 수사 사건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이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의 필요성

아동 증언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보통 3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도 본인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회상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동의된다(Quas & Schaaf, 2002). 그러나 아동

이 보고하는 정보의 풍부함과 구체성 정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보 인출 역량보다도 면담을 진행하는 면담자의 태도와 면담의 특성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성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에서 면담자의 특성 및 면담의 환경적 변인들은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7). 예를 들어, 아동들은 낯선 성인이나 경찰 제복을 입은 다소 위협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면담자가 면담을 하는 경우 자신의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과거 경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ywitz, Goodman, Nicholas, & Moan, 1991). 또한 현장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아동들이 낯선 면담자들에게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7). 따라서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면담자들은 본격적인 수사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에게 낯선 면담자와 환경이 주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

오래 전 부터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 의해 면담 전 충분한 라포 형성이 아동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아동의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보고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organ & Friedemann, 1988). 면담 전 라포 형성은 면담자와 아동이 따뜻한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낯선 면담 환경이 유발하는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한 감정들이 소모되는 인지적 용량을 아동이 요구 받은 과제에 대한 정보 인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라포 형성을 통한 면담자와 아동의 신뢰감 형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회상된 정보들을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ynan, 1999). 또한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는 수사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면담 단계에서 면담자의 유도 및 암시적 질문에 아동이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아동 진술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6). 또한 아동 면담과 관련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현장 실무자들이 실시한 98건의 아동 성학대 사건의 수사면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사면담 전 바람직한 라포가 형성된 경우 본격적인 수사면담에서 아동은 면담자의 질문에 더 장시간 집중할 수 있고, 아동 진술의 양과 질이 라포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Ruddock, 2006). 이 현장 자료 조사 역시 면담자와 아동의 긍정적인 라포 형성이 면담자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높이고, 본 수사면담에서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근심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매개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라포 형성은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긍정적 효과의 근원적 기제는 면담자가 면담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학술적 연구들과 현장 자료들에 의해 일관성 있게 동의되고 있다.

아동의 인지적 과제 수행에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개괄해보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긍정적 면담 환경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Moston, 1992), 면담자의 유도 질문에 대한 아동의 피암시성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stock & Pipe, 1997). 또한 아동들이 면담자를 부모님처럼 친숙한 대상, 위협적이지 않는 대상으로 느끼는 경우(Ricci, Beal, & Dekle, 1996; Tobey & Goodman, 1992), 아동 회상의 정확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반적인 보고의 오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면담자의 의사소통 기술이나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조절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의 결과들은 아동 면담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기억 인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보 보고의 향상을 도출한다는 인과적 관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일관성 있는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Goodman, Hirshman, Hepps, 와 Rudy(1991)은 3-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촉 주사를 맞은 경험

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가 중립적 자세를 제공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면담자가 사회적 지지를 풍부하게 제공한 집단의 아동들이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은 경험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회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로, 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경우, 중립적 면담자 혹은 다소 위협적인 면담자 집단의 아동들보다 면담자의 유도 및 암시적 질문에 대한 오류를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Bottoms, 2002). 또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첫 면담의 일주일 후 반복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제공된 면담자 집단의 아동들이 통제 집단의 아동들 보다 일주일 후에도 더 우수한 회상과 암시적 질문에 더 적은 오류를 나타내었다(Bottoms, Quas, & Davis, 2007). 이와 같은 일관된 결과들을 관련 연구자들은 면담자가 면담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으로 하여금 유도 및 암시적인 정보를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 보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개인차(예: 기질, 부모와의 애착 형태) 및 인지적 개인차(예: 작동 기억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Davis & Bottoms, 2002).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기억 수행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Imhoff 와 Baker-Ward(1999)는 3-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을 제공하고, 2주 후 동일한 면담을 반복 실시하였다.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에서 아동의 경험에 대한 회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주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면담을 실시하여도 두 집단의 아동들은 모두 비슷한 회상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불일치성 대해 관련 연구자들은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강도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실험 집단과 비교되는 통제 집단이 단순히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중립적 태도인 경우보다 다소 ‘위협적’인 태도의 면담자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집단 간의 아동 회상 보고의 차이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Davis & Bottoms, 2002). 이는 아동 면담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아동 보고의 정확성 향상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위협적인 면담자의 경우 아동의 회상 보고에 확실히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수사면담 전문가들은 아동 면담시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연령, 아동 개인차 및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동의 회상 보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Hershkowitz(2009)는 성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NICHD(미국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수사면담 지침에 따라 진행된 면담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분석하였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지침이 제시하는 사회적 지지는 면담자가 면담 도중 아동의 이름을 친근하게 자주 언급하고, 아동의 회상 내용과 관계없이 아동이 응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중립적인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특히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 즉, 면담자가 어떤 단서의 제공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방적으로 물어보는 자유 회상적 형태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반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할수록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나이든 아동들은(7-9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자유 회상적 보고에 높은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나, 보다 어린 아동들은(4-6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자유 회상적 보고에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개인차 요인에 따른 차이도 있다.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

로 말이 많은 아동들보다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들에게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shkowitz등(2006)은 수사면담 현장 자료들을 직접 분석하여, 면담자와 의사소통을 꺼려하는 아동들과 대조적으로 면담자에게 매우 협조적이며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들을 나누어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정도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비교해 보았다. 예상한 바와 달리, 의사소통을 주저하는 아동의 수사면담에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낮은 빈도로 제공되었고, 면담에 협조적인 아동들에게 면담자는 사회적 지지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혹은 긍정적 정서가 포함된 경험들이 아닌 수치심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부정적 정서가 포함된 경험에 대한 회상을 요구하는 아동 수사면담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실험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적인 아동 면담 훈련을 받은 면담자들조차도 아동 면담시 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라포 형성에 필요한 주의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현장 평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Westcott & Kynan, 2006). 면담자들이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을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수사면담 과정에서 아동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응용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아동 수사면담 지침으로 알려진 NICHD 지침서에 제시된 아동 수사면담의 라포 형성 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 절차

국외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시 본격적인 사건 면담에 앞서 면담자가 아동과 적절한 라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되어 왔다(Home Office, 2002). 그 중에서도 아동 수사면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담 지침서는 ‘NICHD 아동수사면담 프

로토콜'이다. 이미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는 NICHD 아동수사면담 프로토콜은 기본 라포 형성 단계부터, 아동 서술 훈련 절차, 수사 사건 면담 절차, 면담의 마무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Roberts, Lamb, & Sternberg, 2004; Lamb et al., 2008). 특히 이 프로토콜은 수사면담시 면담자가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 '자유 회상적 질문'에서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자발적으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부터 면담자가 아동이 일상생활 및 과거에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서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프로토콜의 라포 형성은 크게 2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가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서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최근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예: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갔던 일)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 경험에 대해 회상할 것을 권유한다. 이 두 단계의 라포 형성은 면담자가 아동과 정서적 친밀함과 상호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동에게 일상 경험에 대한 서술 훈련과 일화적 기억 회상 훈련 제공의 이차적 목적을 포함한다.

각 단계의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면담자는 라포 형성에 앞서 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본 면담에서 아동의 주요 회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면담자는 아동에게 회상 보고서 구체적인 진술의 필요성, 사실적 정보만을 서술하는 것의 중요성, 대화의 기본 규칙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면담 과정에서 아동은 언제든지 면담자의 질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언제든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와 같은 솔직한 응답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면담의 주요 목적과 진술의 기본 규칙들을 아동

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의 첫 번째 단계인 일반 서술 훈련을 시작한다. 일반 서술 훈련에서 면담자는 아동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제안과 함께 아동이 좋아하는 것들, 가장 즐거웠던 최근 경험 혹은 즐겁지 못했던 최근 경험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볼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나서 면담자는 라포 형성의 두 번째 단계인 일화적 기억 회상 훈련을 시작한다. 면담자는 아동에게 몇 일전 혹은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일들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볼 것을 요청한다. 아동이 매우 간결한 응답만을 제공하는 경우, 면담자는 아동의 응답에 바탕을 두고 그 경험과 관련한 특정 사람이나 사물, 행동, 및 환경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모든 정보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더 이상 서술할 것이 없거나 충분한 서술 훈련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 단계를 마무리한다.

이 표준화된 구조적 라포 형성 과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면담자들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몇 가지 주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는 면담에 지극히 비협조적인 아동의 경우 면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라포 형성을 위한 면담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심하게 소극적이거나 면담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담자는 좌절하게 되고 이는 면담 전 과정에서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제공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현장 자료에 의하면, 아동이 겪고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면담자가 미리 파악하는 경우, 면담자는 아동의 정서 및 감정 상태를 더 잘 공감하게 되고 면담시 사회적 지지 제공에 대한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8). 또한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 아동 응답에 대한 반응수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면담 후 제공받게 되면, 면담자는 라포 형성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 특성에 따라 부가적인 단계를 추가하거나 라포 형성 단계의 세부 순서를 조절하는 식의 융통성 있는 접근으로 보

다 효과적인 라포 형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8).

수사면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또 다른 난관은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감정이입이 아동의 지나친 신뢰와 면담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아동의 사회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게 면담자가 기대하는 응답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는 경향이 강하다(Malloy & Quas, 2009). 이와 같은 아동의 진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면담자들은 수사면담시 아동에게 사회적지지 제공을 가능한 자제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면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oston & Engelberg, 1992). 그러나 면담자가 라포 형성 단계 혹은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특정 사실적 보고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회상하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지지는 아동의 전체 보고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낯선 면담 환경에 대한 정서적 편안함과 진술의 내적 동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동의되고 있다(Hershkowitz, 2009).

이외에도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의 라포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논점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실제 면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 자료와 국외의 학술적 연구들을 토대로 라포 형성 과정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질문의 구조 및 형태,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른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의 관계성, 특히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동 수사면담시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에 따른 라포 형성의 영향

면담자의 다양한 질문 형태들 중에서 개방형 질문 형태가 아동 보고의 양과 질에 미치는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왔다(Roberts et al., 2004).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서술 기회를 제공받은 아동들이 수사면담 단계에서도 경험한 사건에 대한 자발적 서술이 향상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서술 반응 정도를 통해 수사면담시 아동의 자발적 진술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풍부하고 자발적인 서술이 면담자의 경청과 공감적 태도를 이끌고, 나아가 이 면담의 중심이 자신이고, 아동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갖는 가치를 지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면담자의 질문 형태뿐만 아니라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avies, Westcott, 와 Horan(2000)은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한 수사면담 자료들을 토대로 라포 형성 시간이 8분이하였던 면담과 그 이상이었던 면담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짧은 라포 형성의 면담이 긴 라포 형성의 면담보다 수사면담시 아동 진술의 양과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oh 와 Lamb(2010)연구에서도 라포 형성이 길어질수록 본격적 수사면담시 아동 보고의 전체 양이 감소하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였다. 다소 긴 라포 형성이 아동의 집중도뿐만 아니라 면담자로 하여금 면담 질문과 아동의 응답에의 반응 노력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아동 진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포 형성에 소요된 절대적인 시간이 수사 사건과 관련된 아동 보고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불편해 하는 아동일수록 면담자는 라포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이는 곧 수사면담시 아동 진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아동의 기질적, 맥락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사면담시 아동의 자발적 진술량의 주요 예측변수도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본격적인 수사면담에서 개방형 질문에의 아동 응답률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아동의 인지 발달적 관점에서도 예상되는 결과이다. 어린 아동일수록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및 정보 인출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과 주의 집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라포 형성 단계에서부터 사건과 무관한 질문들

로 아동이 인지적 자원과 주의 집중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할애하게 되면 본격적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진술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짧은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보고의 정적 상관은 결코 인과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면담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 일괄적으로 제안하는 바는, 지나치게 긴 라포 형성이 아동 진술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진술의 관계를 해석하는 바람직한 견해는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고려하기 보다는 면담자가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면담에 대한 아동의 동기 부여와 수사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아동의 다양한 연령과 수사 사건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이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4세의 어린 아동부터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수사면담에 대해 학술적 연구자 및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아동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관계에 다양한 아동의 연령차를 고려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면담자의 라포 형성에 투자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수사 면담 단계에서 아동 진술의 양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Teoh 와 Lamb(2010)은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아동 진술의 부적 관계성이 5-7세 아동에게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든 아동 8-12세 및 13-15세를 대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라포 형성시 면담자의 질문 형태가 아동 진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Hershkowitz(2009)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서술 정도는 수사 면담에서 아동의 자발적 진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린 아동 4-6세와 나이든 아동 7-9세를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든 아동에게는 라포 형성 과정에서의 서술 정도와 수사면담에서의 진술 정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어린 아동들은 그와 같은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린 아동들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나이든 아동들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어린 아동들은 언어적, 인지적 발달의 미성숙으로 인해 면담자들은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보다는 선택형 질문을 많이 제공하게 되고, 이는 곧 수사면담의 질문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개인차에 있어서도 아동의 연령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Hershkowitz(2009)은 상대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아동과 활발하고 의사소통이 많은 아동으로 나누어 라포 형성과 수사 사건과 관련한 아동의 진술 정도를 살펴보았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반응성과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은 본격적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 진술의 양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와 상반된 특성을 가진 아동의 경우는 그와 같은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말이 적은 아동의 면담은 라포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동의 반응보다 상대적으로 면담자의 반응이 더 많아진다. 이는 곧 수사면담시 아동의 집중력과 수사사건에 대한 진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4-6세의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다 나이든 7-9세 아동의 경우,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아동일수록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라포가 구축되는 경우, 수사면담시 아동 진술의 양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이와 같은 성격 및 기질에 따른 개인차 이외에, 학대 받은 경험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아동과의 라포 형성에 대해서도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많은 수가 형식적 수사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고 인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수사면담에서 아동이 학대 경험을 인정하는 비율은 평균 45% ~ 74% 정도로 연구자들은 아동의 학대 경험 인정 여부가 수사면담의 질과 형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London et al., 2007). 학대 경험을 아동이 특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혈연관계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경험

이거나,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경우들로 조사되었다(Hershkowitz, Horowitz, & Lamb, 2007). 또한 이와 같은 아동들이 수사면담을 통해 학대 경험을 인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진술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Orbach, Shiloach, & Lamb, 2007). 따라서 이와 같은 성향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는 일반 수사면담 보다도 면담자의 라포 형성이 갖는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하다. Hershkowitz등(2006)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50건의 수사면담 중, 학대당한 경험을 인정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대 경험을 인정한 아동의 경우 라포 형성 단계에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이 더 많이 제공되고, 아는 곧 면담자의 전체적인 질문수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의 반응성을 통해 수사면담 단계에서 아동의 학대 경험 인정 여부도 예측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 반응이 소극적이고, 면담자가 개방형 질문보다 선택형 질문이 반복되면, 면담자는 본격적 수사면담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아동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라포 형성 단계를 더 보장하는 것이 권장된다.

결론적으로 라포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 수사 사건에 대한 아동 진술 정도의 부적 상관은 어린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이든 아동들에게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이든 아동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말이 적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축된 라포 형성이 보다 중요하다.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관계성을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라포 형성의 소요 시간과 아동 진술과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 또한 학대 경험을 노출하기 특별히 꺼려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면담자는 라포 형성 단계에서 보다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반복적인 라포 구축 시도가 필요하다(Lamb et al., 2008).

전체 논의

국외에서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시 바람직한 라포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험적 연구 및 현장 자료의 조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아동이 경험한 치명적이고 불쾌할 수 있는 부정적 성격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회상하고 회상된 정보를 낯선 면담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수사면담의 상황은 어린 아동에게 공포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적절한 라포의 형성은 아동의 전반적인 긴장 수준을 완화시켜 아동이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 부여와 정서적 안정 제공에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사면담자는 라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아동의 주의 집중 역량과 인지적 자원 활용의 최적화 수준, 라포 형성 및 본격적 수사면담에 적절한 시간 안배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긴 라포 형성은 오히려 아동의 주의 집중 저하와 인지적 자원 고갈로 인해 수사사건과 관련한 아동 진술의 양과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NICH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와 아동의 라포 형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의 라포 형성 절차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서술 훈련과 일화적 기억 회상 훈련 단계를 포함한다. 면담자는 이와 같은 구조화된 라포 형성 단계를 통해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들을 파악하고, 아동이 본격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 서술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아동 면담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역할에 대해 학술적 연구뿐 아니라 현장 자료 조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면담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인지 및 기억 과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Bottoms et al., 2007). 게다가 현장 자료들도 수사면담시 면담자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이 면담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아동의 특별한 진술 내용에 따른 면담자의 정서적 피드백이 제공되어선 안 된다. 아동의 보고하는 정보와 무관하게 면담에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아동의 내적 동기와 노력에 대하여 면담자의 일관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수사면담 맥락에서 라포 형성과 진술 정확성과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김시업, 2011; 김시업, 문옥영, 김기민, 2010).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서 아동이 피해자 혹은 관련 참조인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국내의 실정에서 성인보다도 맥락적 및 환경적 요소에 훨씬 더 민감한 어린 아동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수사면담시 라포 형성과 아동 진술과의 관계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살펴본 국외 연구들을 동향과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정 체계와 아동 수사면담 환경을 반영한 바람직한 라포 형성 방법, 아동 진술과의 관계성,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차별적 라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시업 (2011). 인지면담. 학지사
- 김시업, 문옥영, 김기민. (2010). 수사 면담시 라포가 진술의 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49-167.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7).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05-06*. Child Welfare Series no. 40, Cat. no. CWS28. Canberra, Australia: AIHW.
- Bottoms, B. L., Quas, J. A., & Davis, S. L. (2007). The influence of the interviewer-provide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ggestibility, memory and disclosures.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 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65-75). Mahwah, NJ: Erlbaum.
- Orbach, & A. 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135-157). Mahwah, NJ: Erlbaum.
- Bruck, M., Ceci, S. J., & Principe, G. F. (2006). The child and the law. In K. A. Renninger, I. E. Sigel,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4, pp. 776 - 816). Hoboken, NJ: Wiley.
- Creighton, S. J. (2004). *Prevalence and incidence of child abuse: international comparisons*. NSPCC information briefing. London: NSPCC Research Department.
-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 185-215.
- Davies, G. M., Westcott, H. L., & Horan, N. (2000). The impact of questioning style on the content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victims. *Psychology, Crime & Law, 6*, 81-97.
- Goodman, G. S., Hirshman, J. E., Hepps, D., & Rudy, L. (1991). Children's memory for stressfu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7*, 109-158.
- Greenstock, J., & Pipe, M. E. (1997).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Peer support and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461-483.
- Hershkowitz, I. (2009). Socio-emotional factors in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alleged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14*(2), 172-181.
- Hershkowitz, I., Horowitz, D., & Lamb, M. E. (2007).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ssociated with disclosure and nondisclosure of child abuse in Israel.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65-75). Mahwah, NJ: Erlbaum.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6). Dynamics of forensic interviews with suspected abuse victims who do not disclose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 753-769.
- Home Office. (2002). *Achieving the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for vulnerable and intimidated witnesses, including children*. London: Home Office.
- Hynan, D. J. (1999). Forensic psychological interviews with children. *The Forensic Examiner, 8*, 25-28.
- Imhoff, M. C., & Baker-Ward, L. (1999). Preschoolers' suggestibility: effects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language and interviewer supportivenes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07-429.
- Lamb, M. E. (2003). Child development and the law. In R. M. Lerner, M. A. Easterbrooks, & J. Mistry (Eds.), *Handbook of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6. (pp. 559 - 577). Hoboken, NJ: Wiley.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amb, M. E., Orbach, Y., Warren, A. R., Esplin, P. W., & Hershkowitz, I. (2007). Enhancing performance: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veness of young witnesses.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indsay (Eds.), *The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ume: Memory for events* (pp. 401-42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ondon, K., Bruck, M., Ceci, S. J., & Shuman, D. W. (2007).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contemporary empirical literature. In: Pipe, M., Lamb, M., Orbach, Y. And 15 Cederborg, A (Eds.) (pp 11-39).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alloy, L. C., & Quas, J. A. (2009). Children's suggestibility: Areas of consensus and controversy. In K. Kuehne & M. Connell (Eds.), *The evalu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 comprehensive guide to assessment and testimony* (pp. 267-297). Hoboken, NJ: Wiley.
- Morgan, M. K., & Friedemann, V. M. (1988). Abuse and religion: When praying isn't enough. In A. L. Horton & J. A. Williamson (Eds.),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nsitive topics* (pp. 145-155). Lexington, MA: Lexington Books/D. C. Heath and Co.
- Moston, S. (1992).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In H. Dent & R. Flin (Eds.), *Children as witnesses* (pp. 33-46). Oxford, UK: John Wiley.
- Moston, S., & Engelberg, T. (199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61-75.
- Orbach, Y., Shiloach, H., & Lamb, M. E. (2007). Reluctant disclosers of child sexual abuse.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115 - 1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Quas, J. A., & Schaaf, J. M. (2002). Children's memories of personal experiences following repeated questi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 304-338.
- Ricci, C. M., Beal, C. R., & Dekle, D. J. (1996). The effect of parent versus unfamiliar interviewers on children's eyewitness memory and identification accuracy. *Law and Human Behaviour, 20*(5), 483 - 500.
- Roberts, K., Lamb, M., & Sternberg, K. (2004). The effects of rapport 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 Psychology*, 18, 189 - 202.
- Ruddock, A. C. (2006). *The relationship of interviewer rapport behaviors to the amount and type of disclosure from children during child abuse investigat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7(4-B), 2241.
- Saywitz, K. J., Goodman, G. S., Nicholas, E., & Moan, S. F. (1991). Children's memories of a physical examination involving genital touch: Implications for report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82-691.
- Teoh, Y-S., & Lamb, M. E. (2010). Preparing children for investigative interviews: Rapport-building, instruction, and evalu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4, 154-163.
- Tobey, A. E., & Goodman, G. S. (1992). Children's eyewitness memory: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forensic context. *Child Abuse and Neglect*, 16, 779 - 79.
- Westcott, H., & Kynan, S. (2006). 'Interviewer practice in investigative interviews for suspected child sexual abuse'. *Psychology, Crime and Law*, 12, 367-382.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2009). *Child Maltreatment 200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n Analytic Review of the Importance of Rapport-Building in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s

Seungjin Le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Rapport building is an essential part of the investigative interview process and there are growing evidence that attempts should be made by interviewers to establish rapport. There are, however, few studies shed light on the effectiveness of rapport building,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 in Korea. Thus, this paper is provided far-reaching research background for the positive effects of supportive interviewing and the importance of rapport building on children's testimony based on the recent empirical researches and case studies in abroad. In addition, it is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the lengths of rapport build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practical purposes. The ultimate goals of this paper are to offer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helpful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rapport building to investigative interviewers, legal professionals, and social workers who study and work within the fields of children's testimony.

Key words : rapport building, social support, NICHD protocol, child's testimony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12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2월 04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2월 10일